

국 어

문 1.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아까운 능력을 썩히고 있다.
 ② 음식물 쓰레기를 썩혀서 거름으로 만들었다.
 ③ 나는 이제까지 부모님 속을 썩혀 본 적이 없다.
 ④ 그들은 새로 구입한 기계를 창고에서 썩히고 있다.

문 2. (가) ~ (라)를 고쳐 쓴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오빠는 생김새가 나하고는 많이 틀려.
 (나)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네가 잘됐으면 좋겠어.
 (라)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시련을 주기도 한다.

- ① (가): 오빠는 생김새가 나하고는 많이 달라.
 ② (나):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③ (다):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네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④ (라):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시련을 주기도 한다.

문 3. 사자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구곡간장(九曲肝腸)이 끊어지는 듯한 슬픔에 빠졌다.
 ② 학문의 정도를 건지 않고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이가 있다.
 ③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구밀복검(口蜜腹劍)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④ 신중한 태도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의 자세가 필요하다.

문 4.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지민’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수: 지난번에 너랑 같이 들었던 면접 전략 강의가 정말 유익했어.
 지민: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정수: 특히 아이스크림 회사의 면접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됐어.
 지민: 맞아. 그중에서도 두괄식으로 답변하라는 첫 번째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더라.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하는 전략이 면접에서 그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어.
 정수: 어! 그래? 나는 두 번째 내용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는데.
 지민: 그랬구나. 하긴 아이스크림 매출 증가에 관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답변한 전략도 설득력이 있었어. 하지만 초두 효과의 효용성도 크지 않을까 해.
 정수: 그렇긴 해.

- ① 자신의 면접 경험을 예로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②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며 상대방의 이견을 반박하고 있다.
 ③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④ 상대방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문 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승상이 말을 마치고도 전에 구름이 걷히더니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낭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아 있었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까칠까칠하더라. 완전한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위가 아니었으니, 이에 제 몸이 인간 세상의 승상 양소유가 아니라 연화도량의 행자 성진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지.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출장입상하고 공명신회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었구나. 이는 필시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하신 것이로다.’

— 김만중, 「구운몽」에서 —

- ① ‘양소유’는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가 되었다.
 ② ‘양소유’는 인간 세상에 환멸을 느껴 스스로 ‘성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③ ‘성진’이 있는 곳은 인간 세상이 아니다.
 ④ ‘성진’은 자신의 외양을 통해 꿈에서 돌아왔음을 인식한다.

문 6. (가) ~ (라)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간밤의 부던 바람에 눈서리 치단 말가
 ㉠ 낙락장송(落落長松)이 다 기우러 가노미라
 흐믓며 못다 핀 곳이야 닐러 무슨 흐리오.
 (나) 철령 노픈 봉에 쉬여 넘는 저 구름아
 고신원루(孤臣冤淚)를 비 사마 썩여다가
 ㉡ 닐 계신 구중심처(九重深處)에 뿌려 본들 엇드리.
 (다)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흔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 저도 날 싱각는가
 천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흐노매.
 (라) 삼동(三冬)의 비웃 님고 암혈(巖穴)의 눈비 마자
 구름 찢 벗뉘도 썩 적이 업건마는
 서산의 ㉣ 흰 디다 흐니 그를 설워 흐노라.

- ① ㉠은 억울하게 해를 입은 충신을 가리킨다.
 ② ㉡은 궁궐에 계신 임금을 가리킨다.
 ③ ㉢은 헤어진 연인을 가리킨다.
 ④ ㉣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벗을 가리킨다.

문 7. ㉠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그들의 끈기가 이 경기의 승패를 ㉠ 했다.
 ○ 올해 영화제 시상식은 11개 ㉡ 으로 나뉜다.
 ○ 그 형제는 너무 닮아서 누가 동생이고 누가 형인지 ㉢ 할 수 없다.

- | | | |
|------|----|----|
| ㉠ | ㉡ | ㉢ |
| ① 가름 | 부분 | 구별 |
| ② 가름 | 부분 | 구분 |
| ③ 같음 | 부분 | 구별 |
| ④ 같음 | 부분 | 구분 |

문 8. 다음 글의 ‘동기화 단계 조직’에 따라 (가) ~ (마)를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설득하는 말하기의 메시지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동기화 단계 조직’이 있다. 이 방법의 세부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주제에 대한 청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2단계: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지어 설명함으로써 청자의 요구나 기대를 자극한다.
 3단계: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청자의 이해와 만족을 유도한다.
 4단계: 해결 방안이 청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화한다.
 5단계: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여 특정 행동을 요구한다.

(가) 지난주 제 친구는 일을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쳤습니다.
 (나) 여러분이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 아마 여러분도 가끔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2천여 명이 자전거를 타다가 머리를 다쳐 고생한다고 합니다.
 (라) 만약 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이 헬멧을 착용한다면 자전거 사고를 당해도 뇌손상을 비롯한 신체 피해를 75%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 타기가 주는 즐거움과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마)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① (가) - (나) - (다) - (라) - (마)
 ② (가) - (다) - (나) - (라) - (마)
 ③ (가) - (다) - (라) - (나) - (마)
 ④ (가) - (라) - (다) - (나) - (마)

문 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시는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 사업을 수행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자체 확보한 공공 데이터와 ○○시로부터 받은 복지 사업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공감 지도’를 제작하고, 복지 기관 접근성 분석을 통해 취약 지역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 공감 지도는 공간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에 소재한 복지 기관들의 다양한 지원 항목과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 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수급자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이 지도를 활용하면 복지 혜택이 필요한 지역과 수급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으며, 생필품 지원이나 방문 상담 등 복지 기관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고, 최적의 복지 기관 설립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그동안 복지 기관으로부터 도보로 약 15분 내 위치한 수급자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이에 교통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복지 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발견하고, 복지 셔틀버스 노선을 4개 증설할 계획을 수립했다.

- 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복지 기관과 수급자 거주지 사이의 거리는 복지 혜택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
 ③ 복지 기관 접근성 분석 결과는 복지 셔틀버스 노선 증설의 근거가 된다.
 ④ 복지 공감 지도로 복지 혜택에 대한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다.

문 10. ㉠ ~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양상은 다양하다. 첫째, “아침 먹고 또 공부하자.”에서 ‘아침’은 본래의 의미인 ‘하루 중의 이른 시간’을 가리키지 않고 ‘아침에 먹는 밥’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밥’의 의미가 ‘아침’에 포함되어서 ‘아침’만으로도 ‘아침밥’의 의미를 표현하게 된 것으로, ㉠ 두 개의 단어가 긴밀한 관계여서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변화하게 된 경우이다. 둘째, ‘바가지’는 원래 박의 껍데기를 반으로 갈라 켜던 물건을 가리켰는데, 오늘날에는 흔히 플라스틱 바가지를 가리킨다. 이것은 ㉡ 언어 표현은 그대로인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시 대상 자체가 바뀌어서 의미 변화가 발생한 경우이다. 셋째, ‘묘수’는 본래 바둑에서 만들어진 용어이지만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도 ‘쉽게 생각해 내기 어려운 좋은 방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말이 일반화되면서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 경우에 해당한다. 넷째, 호랑이를 두려워하던 시절에 사람들은 ‘호랑이’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기 꺼려서 ‘산신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 심리적인 이유로 특정 표현을 피하려다 보니 그것을 대신하는 단어의 의미에 변화가 생긴 경우이다.

- ① ㉠: ‘아이들의 코 묻은 돈’에서 ‘코’는 ‘콧물’의 의미로 쓰인다.
 ② ㉡: ‘수세미’는 원래 식물의 이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릇을 씻는 데 쓰는 물건’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③ ㉢: ‘배꼽’은 일반적으로 ‘땀줄이 떨어지면서 배의 한가운데에 생긴 자리’를 가리키지만 바둑에서는 ‘바둑판의 한가운데’라는 의미로 쓰인다.
 ④ ㉣: 무서운 전염병인 ‘천연두’를 꺼려서 ‘손님’이라고 불렀다.

문 11.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 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우리 농장 근처에 신축된 골프장의 빛 공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빛이 공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야간 조명이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골프장이 야간 운영을 시작했을 때를 기점으로 우리 농장의 수확률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무조건 막는다면 골프장 측에서 반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야간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운영 제한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등의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군에서도 빛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조명의 조도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농장과 골프장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① 시장에게 빛 공해로 농장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② 건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③ 다른 지역에서 야간 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④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제한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문 12. 다음 대화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진: 태민아, ㉠ 이 책 읽어 봤니?
 태민: 아니, ㉡ 그 책은 아직 읽어 보지 못했어.
 이진: 그렇구나. 이 책은 작가의 문체가 독특해서 읽어 볼 만해.
 태민: 응, 꼭 읽어 볼게. 한 권 더 추천해 줄래?
 이진: 그럼 ㉢ 저 책은 어때? 한국 대중문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룬 재미있는 책이야.
 태민: 그래, ㉣ 그 책도 함께 읽어 볼게.
 이진: (두 책을 들고 계산대로 간다.) 읽어 보겠다고 하니, 생일 선물로 ㉤ 이 책 두 권 사 줄게.
 태민: 고마워. 잘 읽을게.

- ① ㉠은 청자보다 화자에게, ㉡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 ② ㉢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 ③ ㉣과 ㉤은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 ④ ㉤은 ㉡과 ㉢ 모두를 가리킨다.

문 13.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 또는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방위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전근대사회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탄생한 근대사회에 이르러 구빈법에 따른 국가 개입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아동보호가 시작되었다.

1922년 잭 여사는 아동권리사상을 담아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성문화하였다. 이를 기초로 1924년 국제연맹에서는 전문과 5개의 조항으로 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아동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라든지 “아동의 재능은 인류를 위해 쓰인다는 자각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아동은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되었을 뿐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최근에 와서야 국제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아동은 보호되어야 할 수동적인 존재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토대로 2016년 「아동권리현장」 9개 항을 만들었다. 이 현장은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이 최선의 이익을 보장 받을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의견이 존중될 권리’ 등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문에는 아동의 권리와 더불어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여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주체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 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
- ② 「아동권리현장」은 「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 ③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현장」에는 모두 아동의 발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 ④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은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에 대한 진전된 성과를 이루었다.

문 14.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 신동엽, 「봄은」 —

- ① 현실을 초월한 순수 자연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 ② 희망과 신념을 드러내는 단정적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시어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 ④ ‘봄’과 ‘겨울’의 이원적 대립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문 15.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이 기관을 잘 수리하여 정련하면 그 작동도 원활하게 될 것이요, 수리하지 아니하여 노둔해지면 그 작동도 막혀 버릴 것이니 이런 기관을 다스리지 아니하고야 어찌 그 사회를 고취하여 발달케 하리오.

(나) 이러므로 말과 글은 한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이요, 사회 경영의 목표와 지향을 발표하여 그 인민을 통합시키고 작동하게 하는 기관과 같다.

(다) 말과 글이 없으면 어찌 그 뜻을 서로 통할 수 있으며, 그 뜻을 서로 통하지 못하면 어찌 그 인민들이 서로 이어져 번듯한 사회의 모습을 갖추 수 있으리오.

(라) 그뿐 아니라 그 기관은 점점 녹슬고 상하여 필경은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니 그 사회가 어찌 유지될 수 있으리오. 반드시 패망을 면하지 못할지라.

(마) 사회는 여러 사람이 그 뜻을 서로 통하고 그 힘을 서로 이어서 개인의 생활을 경영하고 보존하는 데에 서로 의지하는 인연의 한 단체라.

— 주시경, 「대한국어문법 발문」에서 —

- ① (마) — (가) — (다) — (나) — (라)
- ② (마) — (가) — (라) — (다) — (나)
- ③ (마) — (다) — (가) — (라) — (나)
- ④ (마) — (다) — (나) — (가) — (라)

문 16.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오늘 협상에서 만족(滿足)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 ② 김 위원의 주장을 듣고 그 의견에 동의하여 재청(再請)했다.
- ③ 우리 지자체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解結)할 방안이 생각났다.
- ④ 다수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기에 재론(再論)이 필요하다.

